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20

但是用口念呢 還是用心念呢
단시용구념니 환시용심념니
如果用口念 睡着了還有口念 寤寐不離念
여과용구념 수취료친유구위심미분회념
如果用口念 心又是隨其轉 隨處
여과용구념 심우시개심미양자 즉물처
捉摸
착모
因此不明白 便在誰上發起 輕微的疑念
인차불명백 변재수상발기 경미적의념
但不要粗 愈細愈好
단불요조 유세유호

염불시수사자 최작중재개수자
其餘三字不過言其大者而已
기여삼자불과언기대자이기

힘이 붙거나 안붙거나 거기에 상관치 말고 변잡하거나 고요하거나 거기에 상관말라.
한마음 한뜻으로 사무치게 해나기면 그대의 공부는 좋아질 것이다.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이 녀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 라는 데 있다. 그밖에 석지는 늘려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입으로 염하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염하는가?
입으로 염한다면 잠들었을 때라도 입은 그대로 있는데 어찌서 염할 줄 모르는가. 마음으로 염한다 하면 마음은 또한 어찌 생각 돌건인가? 도무지 붙잡을 수도 그릴 수도 없으니 분명치 않다.
그러나 누구인가라는 데서 가볍게 의심하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요
그렇다고 거칠게 의심해서는 안된다. 의념은 미세한 만큼 좋다.

如穿衣喫飯的是誰 向屎放尿的是誰
여현의적만적시수 아시방뇨적시수
打無明的是誰 能知能覺的是誰
타무명적시수 능지능각적시수
不論行住坐臥 誰字一舉 便容易發
불론행주좌와 수자일거 변회용이발
疑念
의념
不待反覆 思量卜度作意才有
부대반복思量卜度의제유
故離字話頭 實在是參禪妙法
고수자화두 실제사참선묘법

隨順境地 單單照禪定 這箇疑念
수시수지 단단조고정 저개의념
像流水般不斷地看去 不生二念
상류수반단지건거 불생이념

웃 입고 밥 먹는 자 누구인가 라든가
똥싸고 오줌 누는 자 누구인가라든가.
욕심부리고 성내는 자 누구인가 라든

“흐르는 물 그치지 않듯 의념 일으켜 한마음으로 사무치게 공부하라”

若疑念在 不要動着他
악의념재 불요동착타
疑念不在 再輕微提起
의념부재 재경미제기
初用心時 必定靜中比動中較得力些
초용심시 필정중비동중교득력사
但不可生分別心
단불분별생분별심

가, 능히 알고 깨닫는 자 누구인가 하는 것 같이 행주좌와를 막론하고 '누구인가' 이 한 자를 들면 문득 가장 쉽게 의념이 일어난다.
그런 의념을 반복하거나 사랑하거나 헤아리거나 생각을 지어낼 필요는 없다. 고로 누구인가라는 화두는 참으로 참선의 묘법인 것이다.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오로지 저 의념을 되풀이 비취보되 흐르는 물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할 것이요 탄 생각을 해서 는 안된다.
만약 의념이 있을지라도 애써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만약 의념이 사라진다면 다시 가볍게 일으켜야한다.
처음 공부할 때는 고요한 가운데서 하는 게 번잡한 곳보다 힘이 붙기가 쉽다. 그러나 절대로 때와 장소에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但不可將誰字 或念佛是誰四字作佛號念
단불시상수사자 혹념불시수사자작불호념
也不可思量卜度去我 念佛是誰叫做
아불시상사랑복락거야 염불적시수규주
疑情
의정
有等將念佛是誰四字 念不停口
유등장념불시수사자 염부정구
不如念阿彌陀佛功德更大
불여념구이미타불공덕경대

不要管他得力 不得力
불요관타득력 부득력
不要管他 動中或靜中
불요관타 동중혹정중
察一心一意的用 禪的功夫好了
이일심일의적용 이적공호호
念佛是誰四字 最著重在疑字

다만 누구인가 혹은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라는 네글자를 가지고 부처님을 호칭하듯 해서 는 안되며 사랑하거나 헤아리지 않으면서 그냥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의정이라 부른다.
어떤 이는 '염불시수' 녀자를 가지고 염하는게 일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마타 불의 큰 공덕을 염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 龍眼

나는 여기 봉영사에서 57년째 살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가 한 절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이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쁠 수도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의미있는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알들은 모두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물처럼 여러 가닥으로 나뉘고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인과라 하는 것인데 이 진리를 모르면 중생이고 알면 부처입니다. 수행자 고타마시타르타가 생노병사의 모든 인연이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인류의 스승이 되셨듯이 말입니다.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서 건강에 유의하여야 할 때입니다. 건강도 다 인연의 그물 속에 있는 것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도 원인이 있어 우리 몸에 찾아 오는 것이고 그 인연이 다하면 떠나가는 것인데라 천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회복 되는군요. 문제는 이 몸에 병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습니까. 요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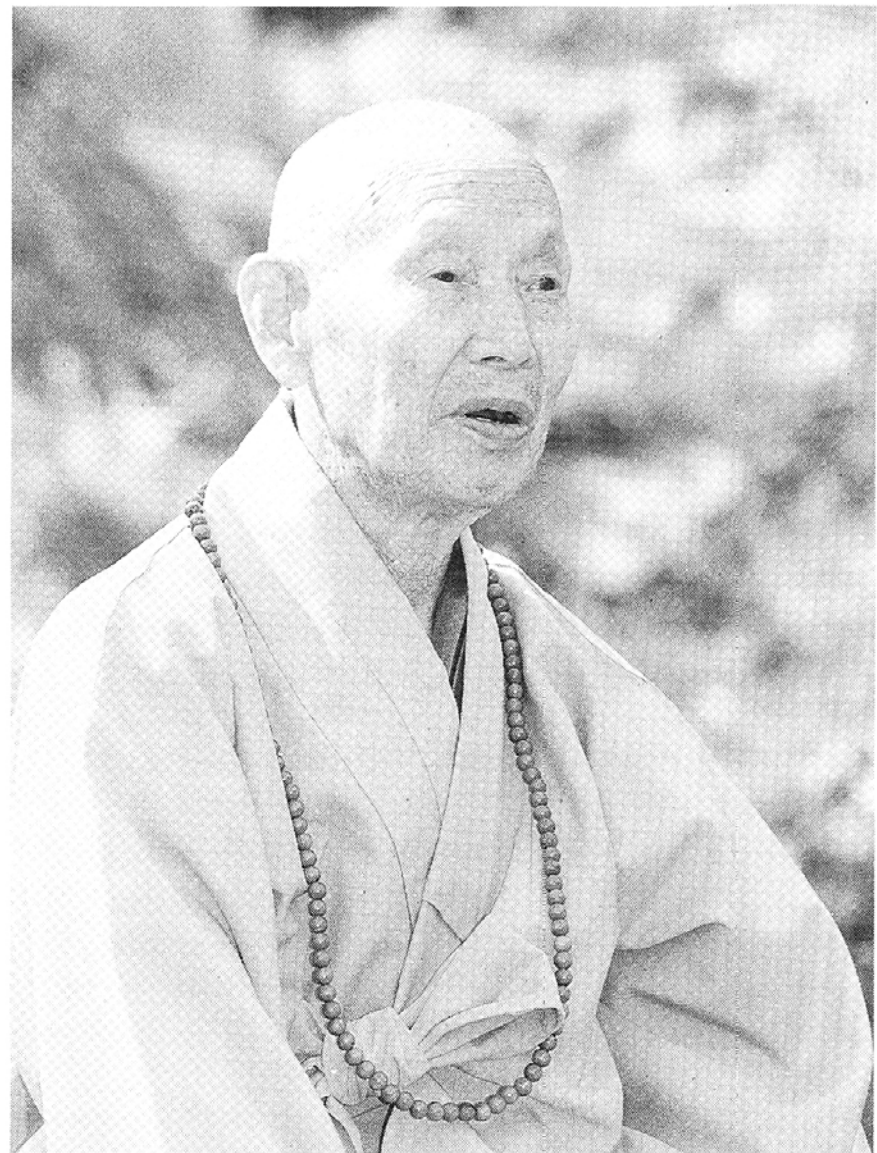
“병을 잘 아는 것
병의 근원 아는 것
병을 잘 다스리는 것
다시 발병 않게 하는 것
네가지를 성취하면
큰 醫王이라 하나니”

건강타령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사기행각을 하는 사람이나 엉터리 약장사가 판을 치기도 하는 것도 그만큼 건강이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몸에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에는 그리 적극적으로 할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인간의 육신에 병이 들기 이전에 먼저 정신이 병든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경우는 드문일입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에 병의 원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나처럼 나이가 든 사람은 한순간 정신을 놓치면 어김없이 병마가 쳐들어와 이 몸이 제집안양 돌아옵니다.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를 즐겨 몸에 병마를 키우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식사습관을 잘 못 가져 병을 불러들이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자신도 코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병보다 스스로 병마를 키워 끝내는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알

혜경스님 (봉영사 주석)

약 력

- 1912년 서울 생
- 27년 봉선사에서 만해스님 은사로 득도
- 봉선사 강원 대교과 미침
- 4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남양주군 봉영사에서 주석



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몸에 병마를 키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도 하나의 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국토입니다. 그것도 불성을 지닌 위대한 국토입니다. 그 불성을 닦아 끝내는 불국토가 될 중생의 몸이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중생심은 그 국토를 대책도 없이 예토로 만들어 버려서 중생의 세상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청정국토에는 청정한 사람이 살고 오욕의 예토에는 온갖 더러움에 물든 사람이 삽니다. 정토란 병이 없고 깨끗한 부처님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정토로 가꾸는 일이 곧 내가 부처가 되

는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없어야 부처를 이룰 수 있으니 말입니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병을 앓으므로 나도 아프다”라고 말 했는데 이미 그 경지는 보살의 경지이고 중생은 중생이어서 병에 신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병에서 벗어 나고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몸에 병드는 것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왕삼매론)에서는 몸에 병없기를 버리지 말고 그 병으로써 수행을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몸에 든 병마를 통해 진리를 배운다는 것인데 이 역시 여간한

경지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중생의 자리에서 중생의 병을 앓을지라도 그 병을 이기는 용기로 불성을 보고 다시는 그런 병이 찾아들지 않게 하는 지혜를 갖추므로 우리는 한발 더 보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가 길었는데 <잡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가지 법을 필요와 분별에 따라 성취하면 큰 醫王이라 하나니, 네가지 법이란 첫째 병을 잘 아는 것이며 둘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며 셋째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넷째 다시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잘 새겨보면 우리 몸의 병에 대한 가르

국태민안과 남북통일기원 제6회 연등대법회 및 수륙대재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는 민족정신의 모체인 불교도의 원력으로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6회 연등대법회와 순국선열과 선망부모 유주무주 고향을 천도하고 법광으로 죄와 화를 소멸시키는 수륙대재를 봉행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이 거룩한 법연의 자리에 무루 동참하시어 구원 겁래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량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11월21일(음10월11일) 목요일
낙동강하구언 을숙도

- 행사내용
11:00~13:00 제1부 수륙대재
13:00~13:50 행운권 추첨 및 부대행사
14:00~15:30 제2부 대법회 및 유등행사
16:00~17:00 제3부 불자 노래자랑

■ 동참금 : 연등 1등 20,000원(1인1등)
영가위패 5,000원

■ 접수처 : 각 사찰 중무소 및 주지스님

- 주 최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 주 관 : 제6회 연등대법회 준비위원회
행사문의 (051)867-0501

제6회 연등대법회 행사준비위원회

대 회 장 백성오
수석부대회장 변춘광
봉행위원장 류진수

불기 2540년 11월 일